

# 수행 길잡이 능엄경 '영어로' 공부한다

### 금강정진회, 7월 8일 개강... 11월까지 진행

불교 수행법을 다른 능엄경을 영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능엄경>은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4교과로 쓰이는 주요 경전으로써 부처 수행법의 요체로 평가받아 왔다.

금강정진회(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가 '영어로 읽는 능엄경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파빌리온에 위치한 승우당서 첫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정진회는 "능엄경은 선의 골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동양 대승 불교권에서 중시하는 경전 중 하나"라고 평하며 "대승 주요 경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한국 불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실천행이다. 이에 첫 번째 불교 강좌로 영어 능엄경 강좌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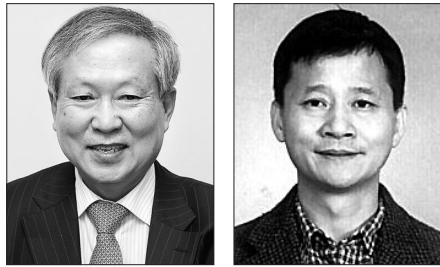
이어 금강정진회는 많은 언어 중 영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젊은 세대의 영어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전을 영어로 공부하는 장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경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기대를 안고 있다"며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전을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영어 공부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강의는 5개월 간 21주차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능엄경 이해(Prologue) △시각적 인식의 성격(The Nature of Visual Awareness) △환상 같은 세계 생성(The Coming into Being of the World of Illusion) △수행의 도구(Instruments for Practice) △25명의 현자들(Twenty-Five Sages) △능엄주(The śūrangama Mantra) △존재의 층위(Levels of Being)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7월 8일 시작된 첫 강의 주제는 '능엄경 전반에 대한 이해'였다. 참석자들은 능엄경 역사와 유래, 경의 구조, 대략적인 경의 내용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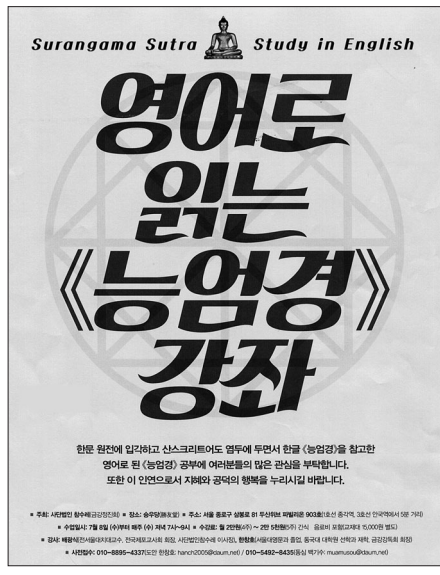
이날 강사로 나선 배광식 이사장은 "능엄경은 우리나라 선종의 소의 경전으로 참선 중 나타나는 갖가지 마군의 유혹을 분별하고 퇴치하는 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수행의 길잡이로서 가장 좋은 경전"이라며 "능엄경의 원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라고 설명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무한히 큰 절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보살들이 닦는 완전무결하고 견고한 육도만행 수행법을 설한 경이라는 뜻이다.

강의 교재로는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2009년 번역판>이



배광식 교수 한창호 회장

젊은 세대 영어수요 맞춰  
부처님 수행법 영어로 공부  
불교 트렌드 수행 공부 '눈길'  
5개월 간 21차 강의 진행



선정됐다. 금강정진회는 "한글본에 입각한 능엄경 강좌는 종종 열렸으나 영어본 강좌는 매우 드물었다. 영어권에서 능엄경 공부가 중국 선화상인 중심으로 선양돼 온 만큼 선화상인의 유지를 받드는 교재를 택하게 됐다"고 선정 과정을 밝혔다.

아울러 강사로는 사단법인 참수레 배광식 이사장과 금강강동회 한창호 회장이 나선다. 배광식 이사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로 치의학박물관장,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장, 도봉산 풍류사 신도회장, 서울대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창호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및 동대학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 재학 중이다. 불교 관련 국역서 <꽃과 쓰레기>(탁남한), <셀프 컴패션>(거머), <미국과 불교의 만남>(트위드) 등을 펴냈다.

한편 금강정진회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 입문에서 성불까지' 정기 오프라인 모임으로 시작했다. 회원수 7천여 명을 보유한 금강 카페는 청와 스님(1924~2003)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2002년도 7월 설립됐다. 이후 2014년 5월 사단법인 참수레 출범, 2014년 10월 충남 태안 태화산 모급룡원을 개원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캠퍼스 포교'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 대불련총동문회, 7월 13일까지 접수

대학생불교연합회가 대학 내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흥, 이하 대불련총동문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은, 이하 대불련)는 집계되고 있는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캠퍼스포교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오는 7월 13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대불련 캠퍼스 포교를 위한 매뉴얼 및 맞춤형 포교 콘텐츠 개발이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사업은 2015년 7월~11월 진행되며, 사업비는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된다.

공모를 위한 세부 내용에는 △캠퍼스포교 매뉴얼 전략의 성공 포인트 △제안 배경 및 목적 △대불련 활성화 전략에서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 △사업 제안의 특징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참가자격은 불교계 포교 연구 사업 및 대학생·비영리단체(기관) 경영분야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한정된다. 참가자들은 제안 기관 현황, 연구 사업 실적, 연구 책임자 이력, 학력 및 경력(신행경력 포함), 연구 사업 경력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계획, 추진 방법 및 시행 체계, 연구진 현황, 세부추진계획(주요 공정표 포함), 용역 결과물, 예산 계획(용역 회사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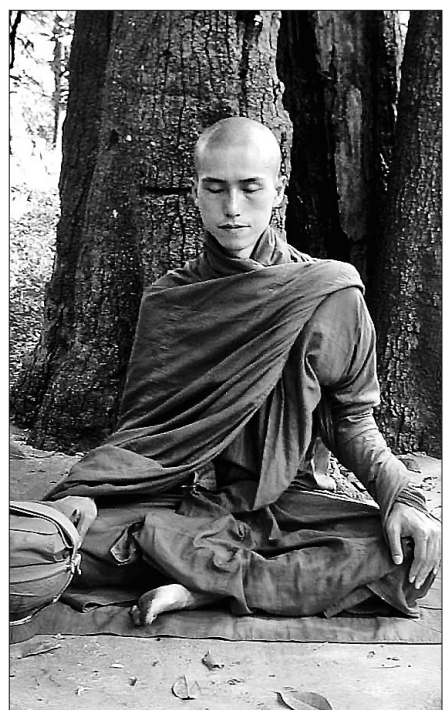
비 산출내역)을 세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정 절차는 △공개공고를 통한 제안서 평가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기관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된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7월 13일 17시로, PDF파일 이메일 접수(대불련총동문회 사무국 daebul333@naver.com)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불련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백효흥 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공모 사업에 대해 "대불련총동문회가 지난 2년간 대불련과 함께 진행한 '대불련 역량강화'를 통한 캠퍼스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 토론회 및 워크숍서 도출된 결과물을 실천하는 1단계 사업"이라며 "선정된 업체는 대불련 캠퍼스포교연구팀 15명 및 대불련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불교전문가 5명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재원은 대불련발전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을 밝혔다.

아울러 백회장은 "기존 신행활동에서 벗어나 대불련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포교전략연구소 설립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불련 역량강화를 위한 동문 결집을 최우선 사업으로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문의 (02)720-1963 대불련총동문회 사무국 박아름 기자

# 사마타·위빠사나 동시 체험 법회 열린다



위빠사나 지도법사 호두마을 선원장 상가라키타 스님 수행 모습.

### 7월~10월 향천선원서... 샷담마사라 스님 탁발 수행도

남방불교의 대표적 수행법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법회가 열린다.

향천선원 한국사마타위빠사나명상(가칭, 이하 명상센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향천선원서 7월~10월 간 사마타 및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병행한다. 사마타 지도법사는 4월~6월 호두마을 비구상가 단기출가 과정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미얀마 파옥 숲속사원 샷담마사라 스님이, 위빠사나 지도법사는 호두마을 선원장 상가라키타 스님이 나선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사마타 수행 법회는 부처님 핵심 수행법인 사마타의 구체적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다. 참가자들은 초기경전인 <니가야>와 그 외 논서들을 중심으로 샷담마사라 스님의 설법을 들은 후 아나빠나사띠 명상을

직접 실습한다. 수행 이후에는 인터뷰가 진행된다. 사마타위빠사나명상 최학봉 홍보위원은 "남방 불교 수행의 핵심은 수행 내용을 스승에게 보고하고 다음 수행의 지침과 숙제를 받는 '인터뷰'가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행 후 샷담마사라 스님과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며 열린 법회를 꾸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회 전에 샷담마사라 스님과 상가라키타 스님이 탁발 수행할 예정이다. 명상센터는 "두 스님이 선원 주변 마을서 탁발 공양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피력했다. 탁발공양을 통해 탁발 전통과 법, 나아가 복지의 의미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남방불교의 정정한 수행 전통과 가풍이 한국 사회에 전해져 부처님 계율과 정법이 널리 흥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명상센터는 근본불교 기본교리 및 근본불교 실천교리 과정도 개설했다. 교리 학습과 함께 위빠사나 명상실습이 진행된다. 기본교리 과정은 삼보(三寶), 십바라밀, 보시·지계·수행 체계 등 교리 학습 후 호호관, 40분 기본수행 과정 등을 실습한다. 또 실천교리 강좌 과정은 업(業), 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교리 강좌와 함께 신·수·심·법을 주제로 사명처 수행 과정을 이수한다.

기본교리는 7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실천교리 강좌는 7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향천선원서 열린다.

한편 향천선원 한국사마타위빠사나명상 법회는 지난해 9월 미얀마 파옥숲속사원의 우실라 사야도 스님을 초청해 사선정 주제 법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후 2015년 4월~6월 말 수파카왕사 스님을 지도법사로 선정 법회를 병행한 바 있다. 문의 (02)2254-3100

박아름 기자

# 중노년 부부 위한 템플스테이 개최

### 불교여성개발원, 7월 11~12일 진행... 부부 위한 맞춤 프로그램 '눈길'

여름을 맞이해 전국 사찰서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가운데 중노년 부부부 10쌍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개최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은 오는 7월 11~12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서 '행복한 나, 건강한 가족을 위한 부부 템플스테이'를 주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기 위한 자리다.

부부를 위한 템플스테이답게 이색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부부명상 △가족헌법 만들기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온구체협 △부부상상 만들기 △화성기사 금성보살 수다방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들의 남편들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중노년 부부부자들이 서로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도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 컬러링 열풍 '엽서'로 변졌다

힐링 문화로 떠오른 '컬러링' 열풍이 엽서에도 옮겨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7월 15일~8월 14일 '심심한 생각 채우기 예쁜 엽서'를 진행한다. 전국 사찰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인 심심한 생각 채우기 컬러링북 엽서와 카드를 구매한 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카드를 완성하는 것이다. 참가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카드와 재료 선택은 자유이

나 1인 3매 이하 응모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9월 1일 화요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최우수상(3명) 문화상품권 5만 원 및 노스페이스 35L 배낭 △우수상(5명) 문화상품권 3만원 및 노스페이스 25L 배낭 △장려상(10명) 문화상품권 1만원 및 노스페이스 모자 △입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등을 각각 수여한다. 문의 (02)733-7277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국 박아름 기자

# 제13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정경호 거사의 뜻을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을 구분해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 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 포교대상
  -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 ① 출가 부문
    - ② 재가 부문
  -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①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사찰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 전개에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②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사찰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 콘텐츠대상
  -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 ① 텍스트·이미지 콘텐츠
    - ② 오디오·영상 콘텐츠
  -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 \* 오디오·영상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 제1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5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2606, 1855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 종단 명칭 변경 및 승려 분한신고 실시 공고

(사)한국불교정토종은 종단을 재 정비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2일부로 종단명을 (사)한국불교본정토종으로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려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종단 소속 전 중도스님 및 법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15년 7월 10일 부터 ~ 8월 10일 까지
- 2 신고대상 : (사)한국불교정토종 소속 전 중도스님 및 법사님
- 3 신고장소 : [총 무 원] 032)543-2693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23번길 7, 3층 (학익동) [경기중무소] 031)411-4984 / H·P 010-3950-49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고잔동, 대원빌딩) 301호

- 신고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 미납자는 필히 납부 바랍니다.  
- 기한내 분한 미신고자는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승적 자동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 입 증 안 내

(사) 한국불교본정토종의 발전과 중지,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법사님 포함)와 사찰을 모시고자 합니다.

◆ 문의 : 총무원 032)543-2693 / 경기지부 031)411-4984 팩 스 031)410-4983 / H·P 010-3950-4984

2015년 7월 10일



(사) 한국불교본정토종  
이사장 도우 / 총무원장 혜각